
새롭게 리모델링된 동국대 산하 은석초등학교 연화법당


새로 조성된 동대부여고 정각원 법당. 새로운 닫집을 제작하고 아트월을 설치했다.


조성 예정인 동대부여중 상 · 상법당의 미디어아트 '진여법계'의 한 장면.

"법당을 놀이터로"…달라진 東大 초·중·고교 법당

동국대 건학위 '학교 법당 리모델링 사업' 본궤도

4월 은석초교 법당 시작으로

동대부여고 법당도 리뉴얼해

미디어 아트 활용 법당 예정

학생 친화적 법당 호응 높아

他종립학교에서 견학 오기도

"어린이 청소년 포교 善사례"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조계종립 동국대 부속 초 · 중 · 고교 법당이 달라지고 있다. 전통 방식을 고수했던 이전 법당과 달리 어린이 청소년들의 눈높이에 맞춰 법당 인테리어를 개선하며 문턱을 낮췄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온다.

"학생 친화적 법당으로 개선을"

동국대 부속 초 · 중 · 고교를 대상으로 한 '산하 학교 법당 리모델링 프로젝트'는 동국대 건학위원회의 역점 사업 중 하나다. 이는 건학위원회 고문 자승 스님이 미래불자 양성을 위한 포교 공간인 산하학교 법당을 어린이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게 개선할 것을 제안하며 시작됐다.

첫 결과물은 불교 유일 종립초등학교인 은석초등학교(교장 양형진)의 법당이었다. 은석초등학교는 지난 4월 29일 점안법회를 봉행하고 새롭게 리모델링한 '연화법당'을 공개했다. 빨간 분채를 사용한 탱화나 우락부락한 사천왕상 대신 귀여운 천진불상과 아기자기한 후불탱화로 법당이 장엄돼 어린이들이 다가가기 쉽게 했다.

실제, 리뉴얼된 은석초등학교의 '연화법당'은 학교 명소로 자리매김했다. 양형진 은석초등학교장은 "달라진 연화법당은 학교의 새로운 포토존 명소가 됐다. 학생과 학부모들의 호응도도 높다"고 밝혔다. 법당에 대한 문턱이 낮아진 점이 가장 많이 달라진 점이다. 양형진 교장은 "학생들이 자유롭게 법당에서 공기놀이를 하며 법당을 편안한 장소로 인식하고 있다"면서 "학부모들도 거부감 없이 법당에서 바자회, 연수, 공개수업 등의 행사를 소화한다"고 설명했다.

"공주님들의 놀이 공간으로"

은석초등학교에 이은 '산하 학교 법당 리모델링 프로젝트'의 결과물은 동국대사범대학 부속여자고등학교(교장 박현숙, 이하 동대부여고)이다. 동대부여고는 7월 11일 교내 정각원에서 '중수불사 회향 및 개원식'을 봉행했다.

개선 전 동대부여고 정각원 법당은 전통 방식을 재현하기 위해 닫집, 공포 등이 설치됐었다. 특히 닫집은 필요 이상으로 커 법당이 비좁은 느낌이 들었다. 이에 동대부여고는 닫집과 공포를 철거하고 불단에 맞는 새로운 닫집을 제작했다. 불단 옆에는 아트월을 설치해 학생들이 자유롭게 자신의 작품을 붙일 수 있게 했다. 내부를 새로 칠하고 조명도 환하게 바꿔 학생들이 편안하게 법당에 올 수 있도록 했다.

건학위원장 돈관 스님은 "학생들이 법당에서 편안한 시간을 보냈으면 한다"며 "법당이 우리 공주님들의 놀이터가 되고, 교실이 되고, 자신이 바라는 것을 기원하는 공간이 되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동대부여고는 학내 법당을 학생들이 자유롭게 쉬고 공부하는 공간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박현숙 동대부여고 교장은 "정각원 법당이 여고에 어울리는 모습으로 개선됐다"며 "앞으로 다목적 활동 공간으로 활용할 예정이며, 이곳에서 학생들이 불교와 부처님에게 스며들길 바란다"고 기원했다.

이학주 교법사는 "부처님 쪽으로 발만 안 뻗으면 법당에 누워서 자도 된다"면서 "최소한의 예절만 지킨다면 법당을 학생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겠다"고 밝혔다.

학생들 역시 리뉴얼된 법당에 기대감이 컸다. 정은비 파라미타 회장(2학년)은 "기존 법당은 어둡고 비좁은 느낌이 있었는데 새로운 법당은 조명도 밝아지고 넓어져서 편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최첨단 미디어 아트 법당 조성도

동국대 건학위원회의 '산하 학교 법당 프로젝트'에는 최첨단 기술도 도입된다. 세 번째의 결과물이 될 동국대부속여자중학교(교장 전정란, 이하 동대부여중)의 '상 · 상법당'은 최신 미디어아트가 후불탱화로 장엄될 예정이다.

'상 · 상법당'은 기존 불상 뒤에 자리하고 있던 전통 형식의 탱화 대신 고해상도 LED 스크린을 설치해 미디어 영상작품들이 불상, 그리고 적절한 조명과 어우러져 상영되도록 제작된다. 이를 통해 △전통 · 미래 △종교(사상) · 기술(혁신) △정적임 · 동적임 등 상반되는 개념들을 융합적으로 구현할 예정이다.

첫 미디어 작품 '진여법계'의 제작을 맡은 서동주 작가는 "불상 뒤에서 천천히 움직이며 다양하게 변화하는 불교적 시공간의 이미지를 감상함으로써 학생들이 상상력을 확장하고 가상이 인도하는 명상의 세계에 빠져들 수 있도록 했다"며 "이를 통해 심리적 안정과 평안을 얻고, 오랫동안 머무르고 싶은 법당 분위기를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학교 법당 리모델링 프로젝트'는 어린이 청소년 포교의 모범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첫 결과물인 은석초등학교 연화법당을 다른 종립학교에서 견학을 오는 등 벤치마킹에 대한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어서다.

양형진 교장은 "어린이, 청소년 포교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법당 공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동국대 건학위원회의 '산하 학교 법당 리모델링 프로젝트'는 현 세대에 맞는 법당을 조성함으로서 불교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추는 효과를 보여줬다. 향후 사찰과 학교에 조성될 어린이 청소년 법당의 모범 사례로 높이 평가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추본, 日 간토 학살 진상 규명 힘 합친다

7월 12일, 100주기 추진위 발족

"특별법 제정해 피해자 명예회복"

1923년 일본 간토 대지진 당시 벌어진 조선인 학살 진상 규명과 피해자 명예 회복을 위해 100주기를 앞두고 국내외 시민단체와 종교계가 합심, 특별법 제정에 나선다.

'간토학살 100주기 추도사업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7월 12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발족식을 열고 "특별법을 제정해 정부 차원의 진상조사를 벌여 학살의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추진위에는 불교계를 대표해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본부장 월우, 이하 민추본)가 동참했다.



간토학살 100주기 추도사업 추진위원회'는 7월 12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발족식을 개최했다. 불교 대표로는 민추본이 참석했다.

간토 학살은 1923년 9월 1일 발생한 규모 7.9의 간토대지진이 일본 수도권 일대를 강타해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재일 조선인과 중국인, 일본인 사회주의자 등이 학살된 사건이다.

〈독립신문〉에 따르면 '조선인이 우물에 독을 풀었다' '방화한다' 등의 유언비어가 퍼져 자경단, 경찰, 군인에 의해 6000여 명이 살해됐다.

추진위는 2023년 100주기를 앞두고 피해자를 추모하고 역사적 기억을 올바르게 계승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먼저 특별법 제정을 추진, 간토 대학살 진실 규명과 피해자 명예 회복에 나선다. 또 간토 제노사이드 국제학술회의, 피해자 추도식은 물론 간토 역사 상설전시와 순회 전시회도 기획하고 있다.

민추본 사무총장 범종 스님은 "불교계를 대표해 국내외 단체들과 연대, 조선인 학살 진상 규명과 피해자 명예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적극 활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은호 기자

"사경 통해 부처님 법음 가까이하길"

파라미타, 사경 공모 시상식

파라미타청소년연합회(회장 지현, 조계사 주지)는 7월 12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포교원장실에서 제25회 청소년 사경공모 우수작 시상식을 진행했다.〈사진〉

이날 시상식에는 파라미타 총재 범해 스님(포교원장)이 직접 학생들에게 상을 수여하며 격려했다.

시상식에는 대상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을 수상한 박예진(광동고) 학생을 비롯해 특별상 수상자인 김민(은석초), 노을(동대부여고), 최예섭(동대부여중) 학생이 참여했다. 또 최우수상 문서현(약사사 어린이청소년 법회), 우수상 김동현(약사사 어린이청소년 법회) 등도 참여해 상을 받았다.



파라미타 총재 범해 스님은 "청소년 사경공모전은 보다 많은 청소년들이 사경을 통해 부처님 법음을 가까이 하는 계기다 됐으면 하는 바람이었다"며 "학생들이 부처님 말씀 배우고 신행활동을 열심히 하길 바란다. 좋은 인재로 커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